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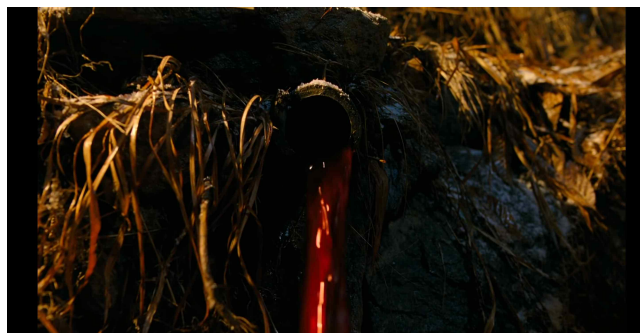
범죄자 인권 같은 소리 하네

반성 없는 범죄자들은 오직 지옥뿐





저는 영화 캐릭터들 중에서 '악마를 보았다'의 이병헌님께 연기해주신 '김수현'이라는 캐릭터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 영화와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자면 김수현의 약혼녀인 주연(배우:오산하)은 차를 타다가 차의 작동이 멈춰져서 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인 장경철(배우:최민식)이 흉기로 차의 창문을 부시고 주연을 기절시켜 납치해 자신의 아지트로 끌고 갑니다. 주연은 배속에 아기 있다고 말하지만 장경철은 무시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밖에 놓고 있는 어린이들에 의해 주연의 잘라진 시신이 발견되고 시간이 지나 경찰들은 나머지 시신중 주연의 얼굴부분을 찾습니다. 여기서 김수현과 주연의 아버지인 장반장(배우:전국환)은 수사 장소에 있었고 경찰한명이 실수로 떨어뜨린 주연의 얼굴을 보고 나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수현은 주연을 살인한 범인에게 주연이 당한 고통의 100~1000배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김수현이 장경철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쓰레기 사이코패스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성 피해자들을 야만적으로 강간하고 살인하는 현실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어 개봉당시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김수현은 직업이 국정원 요원으로 일반인을 쉽게 제압하는 격투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매우 차분합니다. 또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할수록 점점 그가 악마같이 잔인하게 변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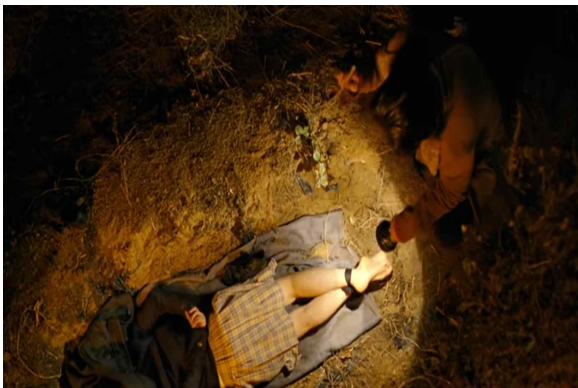


장경철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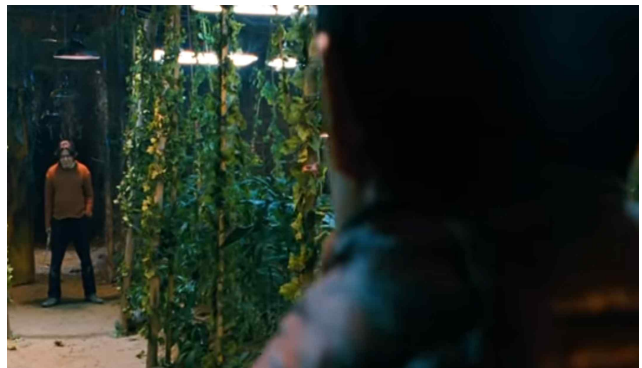


주연의 죽음에 슬퍼한 장반장 과 김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캐릭터를 선정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이코패스를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은 자신이 끔찍한 범행을 일으켜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범행을 또 일으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 법은 그들을 여전히 평범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징역이 짧은 것도 모자라 복지시설이 군대보다 좋은 교도소로 보내는 등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만만하게 생각해 범행을 더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도 장경철이 계속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는 대중매체를 통해 조두순 같은 범죄자들이 약해빠진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잘 지내고 있을 거란 추측할 때 마다 제발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제가 선정한 캐릭터가 장경철 뿐만 아니라 망할 롬들을 패는 장면을 볼 때마다 시원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김수현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1번째 용의자(여중생을 강간하고 살해)의 고환을 망치로 터트려버리거나 2번째 용의자(여성 직장인을 스토킹하고 강간)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순간 차로 들이박아 주먹으로 패버리는 모습 등이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김수현에게 영웅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수현은 3번째 용의자이자 범인인 장경철과 만나기전에 장경철은 학원차 운전기사라 그 학원 차에 탄 여학생들 중 1명을 노리고 어떤 비닐하우스로 납치해 강간 할라고 했습니다. 장경철은 “씨X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라고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김수현이 등장해 그놈과 싸워 쉽게 이기고 기절할 때까지 때린 뒤 그놈 입에 위치추적기(그놈이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를 먹인 다음 치료비 주고 물러갑니다. 다행히 여학생은 무사했습니다. 장경철은 일어난 뒤 택시기사, 손님인척 연기하는 두 명의 강도의 택시에 탑니다. 장경철은 진짜 택시기사 사진과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노려보는 뒷좌석 손님(몰래 흥기도 들고 있었습니다.)을 보고 강도라는 걸 짐작합니다. “아저씨는 운이 없는 것 같아”라며 칼로 2명을 피 터지도록 찌릅니다.(장경철이 범죄 경험이 많다는걸 보여줍니다.) 택시트렁크(진짜 택시기사 시신이 있었습니다.)에 있는 옷으로 바꿔 입으며 택시 훔쳐 타고 어떤 시골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 의사가 치료해줬더니 배은망덕한 장경철은 “씨X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리야”라고 위협합니다. 또한 간호사를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강간을 노립니다. 다행히 김수현이 등장해 간호사를 구해주고 장경철이 괴로워하도록 발 뒷부분을 칼로 찌릅니다. 그 후 김수현은 신사적으로 간호사에게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장경철에게 강간당할 위기의 여학생



다행히 빨리 등장한 김수현, 김수현vs장경철 (1차전)



정신 못 차리고 간호사를 강간하려는 장경철

다행히 소리 듣고 등장하는 김수현, 김수현vs 장경철(2차전)

의식이 생긴 장경철은 음주운전하면서 김수현에게 욕설과 함께 도발합니다. 장경철은 지나가는 군인트럭을 타고 같은 연쇄살인마 친구인 태주(배우: 최무성)집으로 갑니다. 둘은 저녁을 먹으며 김수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태주는 녀석도 우리처럼 고통을 즐기는 사냥놀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합니다. 장경철은 김수현의 반지를 보고 자신이 죽인 주연을 떠올리고 복수의 이유를 예상합니다. 태주는 인육으로 먹기 위해 음악을 들으며 한 여자를 데리고 도살 할라고 합니다. 다행히 장경철과 태주의 이야기 들은 김수현은 음악을 꺼 태주의 관심을 돌리고 여자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태주와 김수현은 싸우고 역시 김수현이 이깁니다. 김수현은 태주를 똑같이 도살 할라고 하지만 총을 든 장경철이 등장해 김수현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있는 무기들 챙겨 장경철과 태주아내 와 태주를 쓰러트립니다. 김수현은 화가 많이 나서 머리에 피나도록 장경철과 태주를 때립니다. 이렇게 장경철이나 태주가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를 때 등장해 연약한 여자들을 구해주고 고통스럽게 갇아주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제 장면 중에 장경철을 죽인 수현은 이름을 바꾸고 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항에 대기하다가 여학생을 스토키 하는 남자를 보고 장경철 같은 느낌이 들어 여학생을 구하고 그놈을 지옥같은 고통을 보내고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 달려가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연과 그녀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신파 때문에 남들이 울어도 슬픔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이 영화보고 슬픔을 느꼈습니다. 영화 속 김수현에게 주연은 아주 소중한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임신부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둘의 인생을 장경철이 귀한 2명을 잔인하게 토막 내면서 망칩니다. 이로써 김수현의 분노와 슬픔을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수현이 태주 집으로 가기 전에 주연의 자매인 세연(배우:김윤서)이 전화로 복수해봤자 얻을 것도 없으며 누군가 자신을 노릴까봐 두려워 돌아 와달라고 말리지만 김수현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경철이 경찰 없는 의무실에 김수현과 그의 동료의 이야기를 쓰러진 척 엿들은 덕에 설사약으로 위치추적기 빼고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죽여 위치추적기를 먹이고 톱니다. 김수현은 그를 찾기자 병원에 있는 태주를 찾습니다. 태주에게 장경철 어디 갔을 거냐고 묻습니다. 태주는 장경철은 보복을 위해 누군가의 가족도 죽이는 미친놈이라고 설명하고 겁 없이 주연을 조롱합니다. 김수현은 태주 입을 찢어버리고 장반장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장경철이 와서 장반장을 피 많이 흘리게 죽이려하였고 세연을 납치 강간하고 죽입니다. 김수현은 쓰러진 장반장의 손을 잡고 슬퍼합니다. 장경철은 김수현에게 “누가 이긴 것 같으냐고?”전화로 도발합니다. 장경철은 경찰들에게 자수하려고 하지만 수현이 자동차 앞문 부시고 장경철을 납치합니다.

김수현은 장경철을 묶어두고 고문하고 나서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떨도록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장경철은 질질 찌는 척 하다가 욕하면서 “난 고통 같은 거 몰라. 두려움 그딴 것도 몰라.” 라고 반성 없는 태도에 수현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복수에 빠져 사랑하는 주연의 가족을 이해하지,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후회, 절망감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경철은 변함없는 놈이라 여기고 죽인 수현은 엔딩신으로 웃음과 울음이 섞인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마치 영화 ‘친절한 금자씨’처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주연의 복수는 확실히 성취해 기쁘지만 그런 짓을 해봤자 세연 말대로 잃음은 그대로라는 허무함과 자신이 악마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에 무겁고 어두운 감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수를 통해 얻을 것은 없다고 해도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군가 때문에 잃게 된다면 저 역시 이러한 감정들이 생겨 잔인한 악마가 되더라도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경험으로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양아치들한테 학교폭력을 당했고 약해빠진 학교 처벌도 전혀 통쾌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그놈들 생각하면 증오와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수현의 마음을 쉽게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 없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용서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며 범죄로부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딱 맞는 엄격한 법이 필요합니다.



김수현 복수를 막으려는 세연



주연의 가족을 박살내버린 쓰레기 장경철



장경철을 고문하는 김수현



장경철을 죽인 후 슬픔과 기쁨이
합친 표정을 가지는 김수현



공항에서 장경철 느낌이 나는 스토키를
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기 위
해 사냥하러 가는 김수현

감사합니다.